

민 성 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수화의 형상을 표현한 조각에 관한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2013년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 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 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이 용 태

수화의 형상을 표현한 조각에 관한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민 성 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 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 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이 용 태

인 준 서

이용태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의원 _____ (인)

심사의원 _____ (인)

심사의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우리는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살아간다.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은 대화이다. 자기의사표현을 하는 방법에는 언어적 방법과 비언어적 방법이 있는데, 언어적 방법으로는 문자화된 쓰기와 말하기가 있고, 비언어적 방법으로는 동물들의 몸짓이나 소리와 같은 어떤 신호를 보내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때로는 언어적 방법보다는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본인은 인간의 언어 중 몸짓을 이용한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그 중에 손을 이용한 수화의 문자화된 표현방법으로 택하였다.

예술에 있어서의 손의 표현은 인류 초기의 인간들의 생활에서부터 현대의 미술에 이르기까지 사상적 표현으로 다양한 의미적 상징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듯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손은 움직임을 통하여 인간과 인간사이의 소통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은 수화중에 지화의 형태를 작업에 도입하였는데, 수화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상징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로 많이 나타나며, 시각적 이미지는 대상의 여러 특징·형태 등을 취하는 것으로 수화는 이 중에서 형태적 특징이 강하다. 지화(指話)는 수화 중에 지문자(指文字)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하는 것을 말한다. 지문자(指文字)는 손의 변형으로 문자의 자모와 숫자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는 손의 형태는 있으나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품의 표현방식은 수화의 지문자를 통한 조형적 대상을 손의 움직임을 통하여 텍스트적인 언어로 소통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이를 목적으로 연구한 논문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 서론에는 본인의 작품에 대해 연구배경과 목적을 설명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작품의 바탕이 되는 지화와 소통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시각적 형상과 손에 의해 적힌 문자가 내포하고, 작품 주제인 손을 이용하여 언어의 시각적 속성을 조형적 요소로 해석하고 표현함에 따라 그것이 작품에서 가지는 조형언어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제작기법과 제작의도를 연구 분석 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개괄적인 정리 및 본인의 작품 진행 방향에 대한 연구 의지를 밝혔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II. 본론	3
1. 연구작품의 배경	3
1)손이 사용되는 수화의 의사소통	3
2)예술에서 본 손	5
3)손의 상징적 표현	7
2.. 연구작품의 조형적 분석	10
1)지화에서의 손	10
2)색채	11
3)도조표현 기법	13
3. 작품분석	16
III. 결론	34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communicating with animals VI 330x120x200mm ceramics, wood 2013	18
【작품 2】 communicating with animals IV 400x100x330mm ceramics, wood 2013	20
【작품 3】 human beings communicate with II 750x110x540mm ceramics, wood 2013	22
【작품 4】 communicating with animals III 650x210x350mm ceramics, wood 2013	24
【작품 5】 nature and communication II 1030x290x380mm ceramics, lighting 2013	26
【작품 6】 human beings communicate with III 660x150x220mm ceramics, stainless steel 2013	28
【작품 7】 human beings communicate with I 370x160x300mm ceramics, stone 2013	30
【작품 8】 communicating with animals VII 2000x1500x1700mm ceramics, F.R.P, 2013	32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현대사회에서 의사소통은 개인과 개인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성을 가지며, 언어에는 텍스트적인 언어와 신체적인 언어로 구분될 수 있다.

텍스트적인 언어는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는데 용이하지만, 간혹 말 보다 몸짓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것이 편할 때 도 있다. 수화는 움직이는 인체가 아닌 하나의 언어로서 손을 통해 심리적·감정적 소통의 수단으로 보았고 본인은 그 중에 건청인¹⁾들이 사용하는 수화에 대한 손짓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본인에게 손은 이미지화 된 소리라는 점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손을 단순한 형태의 재현에서 벗어나 손의 관절을 통해 하나의 기호를 만들고 단어를 형상화 시킨 손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점을 본 연구의 시작점으로 하여, 수화 중 지화의 형태로 단어를 구사하여 소통에 대한 본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 작품 중심으로 지화로 표현한 구성과 재료의 연구를 통해 표현 방법을 극대화하여 작품 속에 내재된 지화의 형태를 음성언어가 갖는 시각적인 것으로 표출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지화와 손짓의 의미를 유추하기 위해 오브제를 이용하여 단어를 표현하여 관객들과 원활하게 소통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미술을 통한 소통의 의미와 시각적인 형태로 보여 지는 의미를 기반으로 작가의 생각을 접목하여 조형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한다.

1) 건청인이란- 청각 장애인에 상대하여, 청력의 소실이 거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손’이라는 대상의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그 형상이 가지는 일반적 의미와 더불어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갖는 상징적 이미지라는 점이 중요하다. 본인작품의 손은 여러 관절로 이루어져 많은 표현과 표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지문자의 손가락 표현 언어로 독자적인 조형 언어로 작품을 전개시켜 의사소통의 배경으로 작품에 도입하여 음성언어의 억양, 강세, 얼굴표정, 몸짓을 색, 무늬, 구도, 형태로 변화시켜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밖에 작품제작에 있어 자율적인 이미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도조의 기법적인 여구와 유약에서 나타나는 색채의 신호나 색채의 의미를 가지고 단어의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오브제의 구성은 단어의 뜻과 연관 시켜 시각적 조형성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언어의 시각적 속성을 조형적 요소로 해석하고 표현함에 따라 그것이 작품에서 가지는 조형언어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II. 본 론

1. 연구작품의 배경

1) 손이 사용되는 수화의 의사소통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은 대화이다. 대화란 다른 말로 의사소통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인 관계는 대개 사람들의 성격·성장 배경·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어떤 일관성 있는 특징이 나타난다.²⁾ 이러한 특징을 적용하여 독자적인 조형언어로 작품을 전개시켜 의사소통의 배경으로 작품에 도입 하였다.

인간이나 동물이 몸짓이나 소리(음성 언어) 를 통하여 어떤 신호를 보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비언어적 방법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이란 ‘개인이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인간, 동물 또는 자연과 대화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³⁾ 여기서 음성언어와 비언어적 방법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글이나 말로 표현한다. 이것이 음성언어라 할 수 있다. 비언어적 방법이란 음성언어에 수반되는 억양·목소리·몸짓·표정 등 음성언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의 의사소통을 말한다. 본인 작품에서 이러한 언어적·비언어적인 소통을 가지고 표현한 【작품 2】 Communicating with animals (zebra)을 보면 지문자의 형태가 하나의 오브제가 되어 작품 속에서 그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한다. 단어표현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의 그림책처럼 동물의 움직임·색·무늬를

2) 홍경자, <의사소통 심리학>, 학지사, 2007, p.28

3) 같은책, p.37

통하여 지시하는 대상이 그대로 표현된 느낌을 살려 '실제'를 연상시키고자 하였다. 중요한 것은 단어의 배열을 통해 뜻을 전달하고, 단어의 설명이 작품속에 표현되는 것이다. 언어로 만들어진 형상은 단어와 이미지의 혼용을 통해 읽히는 것과 동시에 소통하려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사용되는 수화의 형태는 수화의 한부분인 지문자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수화는 인간의 손을 통하여 표현되는 언어이다. 수화는 음성언어⁴⁾와 마찬가지로 손짓을 이용하여 뜻을 전달하는 언어의 일종이다. 사람들의 음성언어사용을 관찰해보면 언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말을 하거나 들으면서 몸짓을 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눈동자를 움직여 신체 접촉을 하는 비언어적 행동을 보인다. 언어적 메시지 보다 목소리나 억양·얼굴표정·몸짓·말하는 자세와 태도 등에서 전달된다. 결국 수화를 사용하는 이들조차도 손의 소리를 시각화하여 단순 손동작만이 아닌 개개인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전달 가능하게끔 표현 가능한 것이다.

지문자⁵⁾(指文字)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하는 것을 지화(指話)라 한다. 지문자(指文字)는 손의 변형으로 문자의 자모와 숫자를 나타내는 것 인데 이는 형(形)은 있으나 의(意)가 없다는 점에서 수화의 기호와 구별된다. 본인의 작품

4) 음성언어란- 음성에 의해 표현되고 이해되는 언어를 말한다. 억양, 강세, 얼굴표정, 몸짓 등이 보조 역할을 한다. 문어(文語)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음성언어는 문어와는 달리 말을 하고 난 후에는 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이 많고 비교적 짧은 문장과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5) 지문자란- 손가락으로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지문자는 한 손 지문자와 양손 지문자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문자는 한 손 지문자로서 1947년 서울농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고 윤백원 선생에 의해 창안되었다. 우리나라 지문자는 자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자음 14자, 모음 10자, 총 24자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이중자음과 이중모음을 합쳐 36자가 있다.

에 나타난 전체적인 지문자는 손으로 공중에 '씩여' 지는데, 그것은 손마디를 이런 저런 방식으로 구부려 지화화 시킨 것이다. 작품의 표현은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추가된 보조물을 통해 본인이 발신하는 메시지의 수신이 가능 하다. 작품 하나가 하나만을 지시 하는 것 이 아니라, 여럿을 매개로하여 기호작용을 한다. 지문자와 형태는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다.

2) 예술에서 본 손

미술과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소통의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과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비유와 암묵적인 은유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작가나 발신자가 관객과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 언어와 미술은 동일한 목적을 둔다. 본인 작품의 이미지는 언어로 인해 표현되는 미술 안에서 암시적인 조형언어로 표현된다. 언어의 이미지는 생각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며 시각적인 것에도 반응 한다. 예술에 있어서의 손의 표현은 자급자족의 생활을 해야 했던 인류 초기의 인간들의 생활에서부터 고대 문명의 종교의식에서 보이는 다양한 상징적 행위 및 현대의 미술에 이르기까지 고매한 영감과 사상적 표현으로 다양한 의미적 상징체가 되어가고 있다. 손은 얼굴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격이나 삶의 역사를 반영하는 아주 개성적인 분야이다. 또한 인간은 손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유일성을 가지며 그 쓰임에 따라 다른 문화를 담기도 한다.

이탈리아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⁶⁾ 는 '손' 즉 기관 중의 기관이 지니는 독특한 의의를 알고 인간을 정의함에 있어 "인간에게는 이성과 손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손이 인간의 이성을 해방

6) 중세 유럽의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신학자.

시키고 인간의 의식을 생산했다는 것이다.⁷⁾ 결국 손을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작가의 생각을 작업 결과물로 보여줌으로써 자아의 정체성과 상징적인 대상으로도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술을 통해본 손은 인체의 한 부분이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왔다. 르네상스의 대가 미켈란젤로(Michelangelo)가 완성한 걸작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 가운데<아담의 창조>(도판1)를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손끝으로부터 자기의 손가락 연결되어 생명을 받고 있다. 양자의 접촉은 '손'을 통해서이다. 미켈란젤로가 이 천지창조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손동작이다. 불상조각에서도 수인(手印)⁸⁾을 중요시하듯 그 또한 손의 동작을 통해 신의 창조행위는 물론 인간의 행동까지도 표현하려 하였다. '손'은 시대의 성격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의미와 방식을 바탕으로 예술작품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20세기 초반의 미술은 다다를 비롯하여 반감성·개념·논리의 극단으로 치달아 왔으나 점차 손으로의 회복을 추구하게 되었다.⁹⁾ 또한 형식보다는 작가의 아이디어와 창조를 바탕으로 종래의 예술에 대한 관념을 보면 손으로 보여 지는 작업 및 그것의 흔적, 사소하거나 심오한 것, 사실이거나 추상적인 그 어느 것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술가의 관념만이 가치성으로 표현된 미술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예술의 흐름은 오늘날 손을 나타내는 방법까지 예술에서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의 특징적 면모를 가지고, 많은 작가들이 그들의 떠오르는 생각과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려

7) 에른스트 피셔, <예술이란 무엇인가>, 김성기역, 돌베개, 1982, p.33

8) 수인이란- 부처님이 내자증(內自證)의 덕을 표시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표상이다. 그 종류는 대체로 비로자나불의 지권인(智拳印)과 법계정인(法界定印), 아미타불의 미타정인(彌陀定印), 그리고 석가여래의 근본 5인, 합장인 등이 있다.

9) 서효숙, <손의 표정을 통한 현대적 이미지 표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p.8

는 노력들이 표현되어 생각과 이상의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가 르꼬르뷔제는 손을 보면 전체적인 윤곽에서 손과 발이 엮히는 경향을 보인다. 르꼬르뷔제는 손은 작업의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자연을 자신의 목적에 따르게 하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 그의 작품 중 (도판2)〈찬디가르의 펼친 손〉은 그가 설계하고, 그에 의해 건립 되었다. 그는 명랑하고 맑은 가운데 주고 받는 것을 상징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주의 법칙에 의존하였다. 1955년에 만들어진 손은 나무와 돌 그리고 천으로 만들어진 모형이 कै피톨의 법원 옆에 세워졌다. 손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베어링에 의해 회전한다. 10)고대 로마의 कै피톨에서 철새를 그렇게 표현했듯이 여기에서는 산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움직인다. 펼쳐진 손의 몸짓은 단순하고 또한 여러 가지를 연상케 해준다. 상부 구조물은 하늘을 향해 뻗친 손이 무엇인가 호소하고 있는 듯하다.

르꼬르뷔제에게 손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되고,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손이다. 그의 손은 그림을 그린다. 평평한 표면에 그리는 것이 아니다. 조각은 3차원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그는 보고 만지고 인식했다. 그는 수용했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11) 이처럼 그는 건축가이자 조각가이다.

3) 손의 상징적 표현

의사전달에 있어 손은 풍성한 표현 방법의 하나로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이것은 어휘와 문법의 숨은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10) 최창길, <르꼬르뷔제의 생애>, 기문당, 2007, p.336

11) 이상림, <르꼬르뷔제의 손>, 공간사, 2006, p.51

사용되어지는 손을 보면 첫 번째로 두 손을 편 상태에서 서로 마주보고 손가락 끝이 위를 향하게끔 하는 자세는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기로를 드리는 자세이다. 이는 마음의 안식을 찾고 평온을 기리기 위하여 자신의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게 기원하고 바라는 자세중의 하나이다.

두 번째로 대부분 사람들이 선서를 할 때 정갈하게 펴진 손바닥을 밖을 향해 보이는 것은 진실을 보여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악수 하는 자세이다. 악수는 사람들과 융화를 이루고자 하는 상징체로 지속되어지고 있다. 상대의 손과 자신의 손이 교차하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을 열어 화합의 의미를 보이며, 더욱 가깝게 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네 번째로 불교의 수인은 손동작과 몸동작으로 나타나는데 바라¹²⁾를 돌리는 손 모양이 갖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손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보처의 참진리를 받아드리고, 손이 바깥쪽으로 나아 갈 때는 그 진리를 널리 펼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담은 것이다. 불교의식에서의 수인은 지화처럼 손가락 마디의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 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 전체에 의미를 담아 부처의 덕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해탈을 위해 베풀어지는 것을 말한다. 부처의 손은 모두의 축복을 기원 하며, 광명과 영원한 삶을 기원한다.

이렇게 손은 단순한 움직임에서부터 상대와의 교감에 이르기 까지 정신적인 의사소통으로 사용되어 진다.

예술작품 속에는 개념과 상징이 본질적으로 투영 되어있다. 이러한 상징이 자연물이 될 수 있는데 자연에 대한 직관적 체험과 관찰은 예술가의 시각에 의해 변형되고 예술가 자신의 내면을 통해 재창조 되는 과정을 거친 후 예술

12) 바라란- 태어나고 죽는 현실의 괴로움에서 번뇌와 고통이 없는 경지인 피안으로 건넌다는 뜻으로,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修行)을 이르는 말

활동을 통해 표현된다. 이러한 예술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연의 본질에 접근하게 된다.

2. 연구작품의 조형적 분석

1) 지화에서의 손

인체는 바로 자신의 모습이며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본질적 존재로서 특히, 인간의 형상 가운데 ‘손’은 무엇을 만든다는 인간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신체 도구 일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표정을 많이 가진 부분이 손이기도 하다. 인간은 손을 가지고 정서적·심리적·정신적·예술적 표현을 마음대로 한다. 손동작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거의 본능적인 것이 되었다. 손의 여러 가지 제스처¹³⁾로 인간의 생각과 느낌,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고 손의 일부분인 지문에는 고유성·유일성·불변성의 특성을 가진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문화와 문명을 지니고 살 수 있는 것은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은 그 어느 누구나 연장보다도 뛰어난 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 정신이 표현되는 언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손은 사랑과 미움, 폭력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선과 악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는 곧 ‘무엇을 위해 인간의 손이 사용되느냐’에 따라 인류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¹⁴⁾ 또한 손과 손의 접촉을 통해 인간적인 정을 교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통을 위하여 사용되는 보편적인 언어만으로는 대화의 본질을 언어내는데 불충분한 요소이기에 결국 손의 움직임을 통하여 소통을 표현하

13) 제스처란- 도구적 행동이 어떤 스타일 또는 매너로 인식되거나 말과 어울려 수행된 이러한 행동, 의도된 몸짓

14) 서강일, <특집 ‘손’ 들숨날숨 -우리는 손을 통해 인간이 되었다.>, 2001년 4월호, p.18

고자 하였다.

수화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상징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로 많이 나타난다. 시각적 이미지는 대상의 여러 특징, 형태 등을 취하는 것으로 지화는 이 중에서 형태적 특징이 강하다. 【작품 6】 human beings communicate with (music)을 보면 음악의 이미지와 지화의 내용적 측면이 일치한다. 이와 같이 지화는 시각적으로 이해되고 손 운동으로 표현되는 시각운동체계 이므로 본 작품에서는 시각적인 의미를 살려 작품을 제작한다. 본 논문은 지화의 형태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였다. 모든 사람이 수화를 이해하지는 못 한다. 그러나 지화는 한글, 영어 등과 마찬가지로 자음과 모음, 알파벳, 숫자의 철차 하나하나를 손가락 모양으로 나타낸다. 이처럼 기본적인 손 모양만 이해한다면 여러 문장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다. 【작품 3】 human beings communicate with (balloon)을 보면 7개의 손이 나열 되어 하나하나 알파벳을 손가락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영문으로 표현된 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작품을 읽을 수 없는 r서는 아니다. 손의 형태뿐 아니다 그 배경에서 보이는 단어의 부과적인 설명과 색으로 표현되는 감정이 작품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화에 담긴 의미와 조형성을 형상화시키고 슬립 구조기법을 이용하고 다양한 유약사용으로 새로운 작품 제작을 시도한다. 본인작품은 그 중, 손의 동작을 이용한 언어를 통한 조형적 대상을 통하여 심리적 언어로 소통을 표현하였다.

2) 색채

색채는 하나의 감성적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분위기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감정의 방법이며, 감정이입의 전달 매체로 가장 솔직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색채는 그 자체가 독립된 세계로서 가치를 가지며 형(形)과 더불어 조형적 표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 세계와 물질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¹⁵⁾ 이처럼 색채도 결정적인 조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은 “색채는 빛 그자체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빛은 생명에, 색채는 사람의 마음과 몸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색채는 빛의 본질이 빛은 생명의 본질이다. 따라서 생명은 색채인 것이다. 우리의 몸의 기관들도 각각 특징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¹⁶⁾ 라고 하였다. 색이란 사람들의 시각적인 체험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색의 상이성이나 동일성 그리고 색의 비례와 분할을 통해 오는 주목, 분산 과 같이 감정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작품에 접목시켜 하나의 조형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은 손의 형상뿐만 아니라 색채에도 의미를 두 려고 하였다. 이것은 언어·단어·조각에 의존하지 않고 색채의 신호나 색채 의 내용으로 작품의 단어 이미지를 전달 하고자 한다. 즉 색채는 화면 구조 속에서 각각의 자율성과 문자의 의미를 나타낼 뿐 아니라 단어에 대한 암시 를 나타내기도한다. 본인의 색채작업을 분석해 보면, 우선 유약 기법에 따른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단어의 시각화를 높이기 위한 특성에 맞는 색을 선택 하여 각 작품마다 독자적인 표현을 지니고 있다. 【작품 1】 communicating with animals (goat)을 보면 흑염소의 검은 색을 중심으로 미묘한 비정함과 단순히 적막함을 떠나서 소통이 단절된 세련미, 힘과 연관되어 있으며, 보호색 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인한 도회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작품 2】 communicating with animals (zebra)에서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얼룩말은 색의 사각적인 잔상을 만들어 착시현상을 불러온다면 형상은 감각적 기관과

15) H. Read,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역, 을유문화사, 1972, p.61

16) 노무라 준이치, <색의 비밀- 최신 색채학 입문>, 김미지자 역, 도서출판 국제, p.4

감정적인 부분에서 잔상을 남긴다. 색과 형상은 시각적으로 다가와 감정을 일으키며, 무늬는 현대인에 자신을 과시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과시의 수단을 부각 시키기 위해 무늬를 원색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7】 human beings communicate with (city)에서 보면 색은 사람들의 시각적인 체험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그 색의 상일성이나 동일성 그리고 색의 비례와 분할을 통해 주목, 분산과 같이 다양한 느낌을 받는 감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색이 주는 감정을 느끼는 심리적인 현상인 것이다. 시각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외곽 된 도시의 이미지와 파란색에서 나타난 신성한 색·영원한 색·툭늘의 색을 시각적인 의미로 표현된다. 이처럼 손의 형상에 색채를 넣으면서 심리적의미를 더욱 확고히 하려 하였고, 조형적 표현방법에서 부족함을 더욱 보충하려 하였다.

3). 도조, 표현기법

도조는 도자조각의 줄임말로 이는 조각의 영향을 받은 현대도예의 조형성을 지칭하는 오브제 도예·조형도자 등과 함께 쓰인다. 도조는 ‘도예’가 스스로 실용성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공예적인 측면을 그 본질로 하지만, 본인은 조각적인 측면을 본질로 하고 있다. 도예의 고유한 질료성과 형식성의 표현 방식과 제작의 방식을 갖는다는 점에서 결합되지만 본질은 조각에서 찾을 수 있다. 도조는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다른 예술의 영역에 쉽사리 접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작품의 표현 방법을 보면 모든 작품에서 보이는 손의 관절을 표현하기 위해 흙 작업 후 석고 원형을 제작하였다. 작품의 성형 방법으로는 동일한 형태를 응용하기 위해 석고 틀을 이용한 고품주입성형¹⁷⁾을 사용하였다. 주입성형 틀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석고 원형에 중심선을 찾고, 이탈제를 발라준다. 중심선과 주입구에 흙담을 쌓아 주고, 필요한 양의 석고를 교반하여 원형에 발라준다. 석고에 물기가 사라지면 흙담을 제거한 뒤 외형을 다듬어 주고 요철홈을 파준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다. 주로 사용된 흙은 캐스팅 기법이 용이한 실크 화이트 소지 슬립을 사용하였다. 배출구에 슬립을 주입하여 일정한 두께의 점토층이 형성되면, 여분의 슬립을 배출시키고 반 건조시킨 후 석고와 탈형시킨 후 건조한다. 건조 후 표면과 사용형 이음새 분할선 부분을 다듬어 주고, 1차 소성시킨다. 1차 소성은 초별구이라고도 하며 소지에 강도를 주고 수분을 완전히 없애주는데, 시유시 기물이 파손되지 않고 유약이 흡수되어 밀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800~850°C의 온도로 소성한다. 유약은 손의 다양한 질감·색감 표현과 작품의 단어표현을 위해 그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색의 무광택유와 광택유를 실험을 통해 사용하였으며, 작품의 크기와 분위기에 따라 담금 시유 하거나 붓으로 시유하였다. 2차 소성은 재별구이라고도 하며 유약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소성해야 하며, 유약에 따라 온도가 차이 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1230~1250°C의 온도로 소성한다.

작품을 보면 대부분 도조가 주제가 되고, 오브제가 부제를 형성한다. 도조가 주제가 된 것은 조각기법과 달리 흙 자체를 소성하여 작업을 한다는 점과, 유약과 소성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색상과 형태를 변형할 수 있다는 점이 조각적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으며 다른 재료와의 접근성도 용이하다는 점이다. 색은 한번의 담금과 붓 칠만으로 채색을 마무리할 수 없다.

17) 고흥주입성형이란- 소지 슬립(slip)을 석고와 같은 흡수성 몰드(mold)에 주입하여 세라믹 제품을 성형하는 것으로 이중형 주입 성형의 경우에는 다공성 몰드가 제품의 외형을 형성하고, 다른 부분은 제품 내부의 형태를 형성하여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마의 열에 의해 소성되어 나온 색을 비교 실험하여 색을 선택하고 마지막 작업과정은 유연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지화의 시각적 형상이 적용되어 얻을 수 있는 독창적인 색채와 형태를 이끌어낸 것이다.

3. 작품분석

본인의 작품은 ‘손’을 주제로 한 도조 작업이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손의 이미지들은 ‘소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다. 표현 방법으로 손의 표정과 움직임을 통한 단순한 형태 표현 보다는 수화 중 “지문자”의 단어를 가지고 의미적으로 표현했다.

먼저 손동작 언어로 지시된 것을 이미지화되고 단어와 함께 결합된다. 단어는 손으로 공중에 쓰여지는데 그것을 손의 마디를 구부려 기호화시킨다. 지화로 쓰여진 단어에 의미를 부여시킨다. 단어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손의 형상을 통해 본인이 나타내고 싶은 의미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 형상이 본인의 생각을 잘 내포하고 있는지 분석하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색채와 그 단어의 즉각적인 의미의 연결이 아닌 오브제의 효과로 새로운 조형언어로 재탄생 하였다. 【작품 8】 communicating with animals (ox)을 보면 자연 속의 동물의 뿔의 상징적인 의미와 조형적 아름다움을 표현 하고 손의 이미지와 단어의 이미지가 결합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처럼 단어는 즉각적인 의미의 연결이 아닌 오브제의 효과로 새로운 조형언어로 재탄생 하였다.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 오브제적 요소와 우연적 효과들이 중첩되면서 단어의 즉각적인 의미는 지연되고 관람자의 해석의 폭을 확장시켰다.

손의 형태를 보면 실제 해부학적 외관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로봇의 관절, 아기의 손, 부처의 손을 연결시켜 재구성 하였다. 여기서 로봇의 관절은 지화에서 손가락이 구부러져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상을 더욱 극대화시킨 것이다. 또한 작업과정에서 손가락 형태를 결합 하는데 있어서 로봇의 관절을 이용하여 결합 하였다.

아기들은 비록 말을 못 하지만 신체언어·표정·시선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

다. 두 살 혹은 세 살 언어습득을 하기 전 까지 표현하고자 하는 것 들은 손 혹은 표정으로 소통한다. 여기서 아기가 처음 언어를 습득 하는 것 과 지화를 습득 하는 과정을 하나라고 보고 작업에 결합하였다.

불교에서 부처의 손은 지혜, 자비, 축복, 광명, 영원한 삶 등 이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사물이나 형상의 표현 방법을 정확하게 이끌어내고, 내가 생각 하는 것에서 가장 완벽한 표현을 하기위해 작업에 결합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작품이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 세 가지를 하나의 손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각 작품들의 묘사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형식은 단어의 표현에 추가된 추상적인 색깔이다. 즉 본인의 작품에서의 손의 형상과 배경, 여백 등은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을 거쳐 하나의 완성품이 되는 것이다.

특수한 언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일반인들에게 안 읽혀지는 것은 아니다. 작품 속 안 밖으로 추가된 보조물을 통해 본인이 발신하는 메시지의 수신이 가능하다. 작품 하나가 하나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을 매개하는 기호 작용을 하며 언어와 형태를 서로 보충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소통이라고 할수 있다.



【작품 1】 communicating with animals (goat)

【작품 1】 communicating with animals (goat)

연도 : 2013년

크기 : 330x120x200mm

재료 : ceramics, wood

제작방법

1. 이미지를 형상화 시킬 단어를 선택한 후 흙으로 만든다. 석고로 외형을 떠내고 다시 내형을 떠낸다.
2. 내형을 관절부위로 나누어 정리한 후 슬립 구멍을 내어 외형을 떠낸다. 외형에 흙물을 부어 슬립 형태로 뽑아낸다.
3. 슬립형태로 나온 손가락 마디를 글자의 형태에 맞게 조립한다. 조립 후 그늘에서 15일간 건조시킨다.
4. 건조된 기물을 물을 이용해 정리하고 800c 가마에 초벌 한다. 초벌상태로 나온 기물에 유약 처리 후 1250c 가마에 재벌 한다.
5. 나무판위에 평면으로 그림을 그림 후 톱으로 잘라낸다. 표면을 사포로 정리한 후 우레탄으로 컬러링을 한다.

작품설명

이형태는 goat라는 영문지화로 표현 되었다. 흑염소의 검은 색을 중심으로 세련됨, 힘과 연관되어 있으며, 보호색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인한 도회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위에 설명했던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단어표현뿐 아니라 시각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실제 염소다리와 손가락을 응용한 빨을 응용 하였다. 윤기 나는 흑염소의 시각적인 의미를 살려 조형적 대상을 통하여 시각적 언어로 소통을 표현하였다.



【작품 2】 communicating with animals (zebra)

【작품 2】 communicating with animals (zebra)

연도 : 2013년

크기 : 400x100x330mm

재료 : ceramics, wood

제작방법

1. 이미지를 형상화 시킬 단어를 선택한 후 흙으로 만든다. 석고로 외형을 떠내고 다시 내형을 떠낸다.
2. 내형을 관절부위로 나누어 정리한 후 슬립 구멍을 내어 외형을 떠낸다. 외형에 흙물을 부어 슬립 형태로 뽑아낸다.
3. 슬립형태로 나온 손가락 마디를 글자의 형태에 맞게 조립한다. 조립 후 그늘에서 15일간 건조시킨다.
4. 건조된 기물을 물을 이용해 정리하고 800c 가마에 초벌 한다. 초벌상태로 나온 기물에 유약 처리 후 1250c 가마에 재벌 한다.
5. 나무판위에 평면으로 그림을 그림 후 톱으로 잘라낸다. 표면을 사포로 정리한 후 우레탄으로 컬러링을 한다.

작품설명

이형태는 zebra라는 영문지화로 표현 되었다. 무늬는 얼룩말 본연의 무늬를 가져와 다섯 가지 색으로 유약 처리 하였다. 위에 설명했던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단어표현뿐 아니라 시각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실제 말 다리를 응용 하였다.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얼룩말은 현대인에겐 자신을 과시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자신을 꾸미고 상대에게 보이는 것도 하나의 소통이라 보고 심리적 언어로 표현하였다.



【작품 3】 human beings communicate with (balloon)

【작품 3】 human beings communicate with (balloon)

연도 : 2013년

크기 : 750x110x540mm

재료 : ceramics, wood

제작방법

1. 이미지를 형상화 시킬 단어를 선택한 후 흙으로 만든다. 석고로 외형을 떠내고 다시 내형을 떠낸다.
2. 내형을 관절부위로 나누어 정리한 후 슬립 구멍을 내어 외형을 떠낸다. 외형에 흙물을 부어 슬립 형태로 뽑아낸다.
3. 슬립형태로 나온 손가락 마디를 글자의 형태에 맞게 조립한다. 조립 후 그늘에서 15일간 건조시킨다.
4. 건조된 기물을 물을 이용해 정리하고 800c 가마에 초벌 한다. 초벌상태로 나온 기물에 유약 처리 후 1250c 가마에 재벌 한다.
5. 나무판위에 평면으로 그림을 그림 후 톱으로 잘라낸다. 표면을 사포로 정리한 후 우레탄으로 컬러링을 한다.

작품설명

이형태는 balloon라는 영문지화로 표현 되었다. 기쁘고 행복한날 소중한 추억을 풍선, 무지개를 이용하여 많은 이들에게 마음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게 꿈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위에 설명했던 음성언어와 만찬가지로 손으로 단어 표현뿐 아니라 시각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무지개 색을 사용하고, 풍선을 매달아 시각적인 의미를 살려 조형적 대상을 통하여 시각적 언어로 소통을 표현하였다.



【작품 4】 communicating with animals (fox)

【작품 4】 communicating with animals (fox)

연도 : 2013년

크기 : 650x210x350mm

재료 : ceramics, wood

제작방법

1. 이미지를 형상화 시킬 단어를 선택한 후 흙으로 만든다. 석고로 외형을 떠내고 다시 내형을 떠낸다.
2. 내형을 관절부위로 나누어 정리한 후 슬립 구멍을 내어 외형을 떠낸다. 외형에 흙물을 부어 슬립 형태로 뽑아낸다.
3. 슬립형태로 나온 손가락 마디를 글자의 형태에 맞게 조립한다. 조립 후 그늘에서 15일간 건조시킨다.
4. 건조된 기물을 물을 이용해 정리하고 800c 가마에 초벌 한다. 초벌상태로 나온 기물에 유약 처리 후 1250c 가마에 재벌 한다.
5. 나무판위에 평면으로 그림을 그림 후 톱으로 잘라낸다. 표면을 사포로 정리한 후 우레탄으로 컬러링을 한다.

작품설명

이형태는 fox라는 영문지화로 표현 되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여우같은 여자의 특성인 간드러진 애교, 시원한 성격, 도도한 매력, 매혹적인 미소를 가진 여성을 불여우에 비유시켜 여성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음성언어와 만찬가지로 손으로 단어표현뿐 아니라 시각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붉은색에서 나타나는 사랑, 열정, 심장 부끄러움 등을 시각적인 의미를 살려 조형적 대상을 통하여 시각적 언어로 소통을 표현하였다.



【작품 5】 nature and communication (cactus)

【작품 5】 nature and communication (cactus)

연도 : 2013년

크기 : 1030x290x380mm

재료 : ceramics, lighting

제작방법

1. 이미지를 형상화 시킬 단어를 선택한 후 흙으로 만든다. 석고로 외형을 떠내고 다시 내형을 떠낸다.
2. 내형을 관절부위로 나누어 정리한 후 슬립 구멍을 내어 외형을 떠낸다. 외형에 흙물을 부어 슬립 형태로 뽑아낸다.
3. 슬립형태로 나온 손가락 마디를 글자의 형태에 맞게 조립한다. 조립 후 그늘에서 15일간 건조시킨다.
4. 건조된 기물을 물을 이용해 정리하고 800c 가마에 초벌 한다. 초벌상태로 나온 기물에 유약 처리 후 1250c 가마에 재벌 한다.
5. 원목으로 좌대를 조립 후 조명을 연결시킨다.

작품설명

이형태는 cactus라는 영문지화로 표현 되었다. 사막의 선인장은 처음 꽃을 피우는데 몇 년이 걸린다. 그것도 진짜 말라죽을 거 같은 위기의식을 느낄 때 마지막으로 꽃을 피운다. 그렇게 자기 존재감도 알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현대인을 대변하고 있다.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단어표현뿐 아니라 시각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조명을 사용하였다. 조명의 빛으로 가지연상 시키고, 불꽃을 피운다는 의미도 함께 부여한다. 손을 통해 나오는 빛을 통하여 소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6】 human beings communicate with (music)

【작품 6】 human beings communicate with (music)

연도 : 2013년

크기 : 660x150x220mm

재료 : ceramics, stainless steel

제작방법

1. 이미지를 형상화 시킬 단어를 선택한 후 흙으로 만든다. 석고로 외형을 떠내고 다시 내형을 떠낸다.
2. 내형을 관절부위로 나누어 정리한 후 슬립 구멍을 내어 외형을 떠낸다. 외형에 흙물을 부어 슬립 형태로 뽑아낸다.
3. 슬립형태로 나온 손가락 마디를 글자의 형태에 맞게 조립한다. 조립 후 그늘에서 15일간 건조시킨다.
4. 건조된 기물을 물을 이용해 정리하고 800c 가마에 초벌 한다. 초벌상태로 나온 기물에 유약 처리 후 1250c 가마에 재벌 한다.
5. 종이위에 그림을 그리고 스테인레스 스틸을 재단하다. 그림에 맞게 용접 후 사포로 정리한다.

작품설명

이형태는 music라는 영문지화로 표현 되었다. 음악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주로 음으로 나타내는 소리 예술이다. 현대사회 예술에서 중요한 음악을 조각과 접목시켰다.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단어표현뿐 아니라 시각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오선 위에 손 모양의 음표들이 배열되어 시각적인 의미를 살려 조형적 대상을 통하여 시각적 언어로 소통을 표현하였다.



【작품 7】 human beings communicate with (city)

【작품 7】 human beings communicate with (city)

연도 : 2013년

크기 : 370x160x300mm

재료 : ceramics, stone

제작방법

1. 이미지를 형상화 시킬 단어를 선택한 후 흙으로 만든다. 석고로 외형을 떠내고 다시 내형을 떠낸다.
2. 내형을 관절부위로 나누어 정리한 후 슬립 구멍을 내어 외형을 떠낸다. 외형에 흙물을 부어 슬립 형태로 뽑아낸다.
3. 슬립형태로 나온 손가락 마디를 글자의 형태에 맞게 조립한다. 조립 후 그늘에서 15일간 건조시킨다.
4. 건조된 기물을 물을 이용해 정리하고 800c 가마에 초벌 한다. 초벌상태로 나온 기물에 유약 처리 후 1250c 가마에 재벌 한다.
5. 판석위에 평면으로 그림을 그린 후 그라인더로 잘라낸다. 표면을 사포로 정리하고 액폭시로 부착시킨다.

작품설명

이형태는 city라는 영문지화로 표현 되었다. 현대문명사회에서 이른바 '도시'라는 단어 하나로 우린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복잡, 속도, 편리, 문명, 현대, 소외, 위험 등... 딱딱한 도시의 이미지를 손으로 표현뿐 아니라 자연적, 시각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외곡 된 도시의 이미지와 파란색에서 나타난 신성한 색, 영원한 색, 하늘의 색을 시각적인 의미를 살려 조형적 대상을 통하여 시각적 언어로 소통을 표현하였다.



【작품 8】 communicating with animals (ox)

【작품 8】 communicating with animals (ox)

연도 : 2013년

크기 : 2000x1500x1700mm

재료 : ceramics, F.R.P

제작방법

1. 이미지를 형상화 시킬 단어를 선택한 후 흙으로 만든다. 석고로 외형을 떠낸다.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와 F.R.P로 캐스팅한다.
3. 빨은 위 작품 ceramics제작과정과 동일하다.
4. F.R.P로 캐스팅한 손가락 부위에 빨을 조립한다.
4. 빨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우레탄 도색한다.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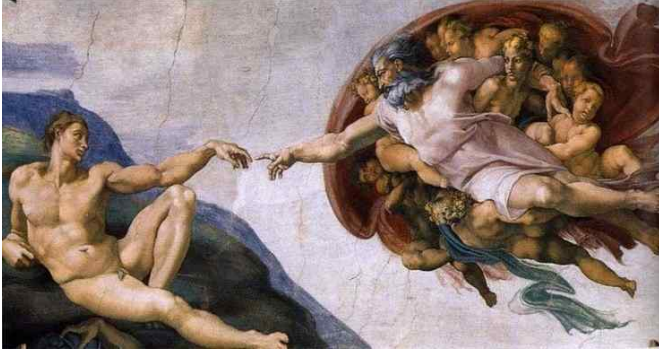
이형태는 ox라는 영문지화로 표현 되었다. 순수한 소의 이미지를 “저놈은 수소다. 눈썹이 검고 불알은 크고 머리엔 도깨비의 빨이 솟아올랐다 저놈은 수소다.” 최승호의 시 【숫소】에서 나타난 소의 이미지를 접목시켰다. 손으로 단어표현뿐 아니라 시각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빨의 이미지를 첨부 하였고, 검정색의 고급스럽고 강렬한 느낌을 주어 기초 색과 악센트 색으로 전시 중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려 하였다. 이처럼 작품 하나가 하나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을 매개하는 기호작용을 하며 언어와 형태를 서로 보충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 론

수화는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고와 감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이로 인해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현대 미술가들에게 조형적 표현매체로서의 수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산 되어가고 있다. 수화 이미지에 대한 작업은 3차원의 입체적인 형태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수화 본래의 형상을 매체로 하는 표현과 지화를 구성하는 구조를 변형하는 표현을 이용하여 미적 감각과 조형성을 추구하는데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손'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자각하고 주변상황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자아와의 소통 또는 인간과 사회와의 의사소통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손을 단순한 형태의 재현에서 벗어나 음성언어로서의 손으로 표현하고 수화 중 지화의 형태로 원초적인 단어들을 구사하여 언어의 시각적 속성을 조형적 요소로 해석하고 표현함에 따라 그것이 작품에서 가지는 조형언어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소통에 대한 본질을 찾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손의 이미지들은 움직임을 통하여 단절된 사회에 숨을 불어 넣고자 하는 노력의 일부로 외부와 끊임없는 의사소통의 노력들이 본인의 주관적 상징 이미지로 표현되어져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 중요한 손의 형상을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작품제작에 있어 자율적인 이미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색채의 우연적 효과도 단어의 뜻과 연관 시켜 시각적 조형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손의 형상과 배경, 색채, 여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을 거쳐서 하나의 완성품이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지화가 가지는 텍스트적 언어의 변화와 시각적 언어로 변하는 조형적성을 알아

볼 수 있었으며, 사고의 전환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나아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본인의 작업을 재정립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총체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신체 일부로만 바라보았던 손의 표정을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찾아내는 실천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통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작업으로 모색해 나갈 것을 향후 과제로 하겠다.

참 고 도 판



【도판 1】

미켈란젤로, <아담의 창조>
1511-1512, 프레스코화 6p



【도판 2】

르꼬르뷔제, <펼친 손 조형물> 1985, 7p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이상림, <르꼬르뷔제의 손>, 공간사, 2006
최창길, <르꼬르뷔제의 생애>, 기문당, 2007
홍경자, <의사소통 심리학>, 학지사, 2007

2. 번역본

- 노무라 준이치, <색의 비밀- 최신 색채학 입문>, 김미지자 역, 도서출판 국제, 1987
라이너 마리아 릴케(시인) , <오귀스트 로댕>, 범우사, 1982
에른스트 피셔, <예술이란 무엇인가, 돌베개인문사회과학신서 14>, 김성기 역, 돌베개, 1982
H. Read,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역, 을유문화사, 1972

3. 국내논문

- 서효숙, <손의 표정을 통한 현대적 이미지 표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4. 기타

- 서강일, <특집 ‘손’ 들숨날숨 -우리는 손을 통해 인간이 되었다.>, 2001년 4월호

ABSTRACT

A Study of Sculpture Expressing the Form of Sign Language

- ON THE BASIS OF MY WORK -

Lee, Yong Tae
Major in Public Art
Dept.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Graduated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We live in harmony with all different kinds of people, exchanging dialogues with them and meeting diverse needs. We exchange conversations as a means to express ourselves in personal relations and meet desires. There are two ways of expressing opinions: verbal and non-verbal. The verbal way includes writing and speaking while the non-verbal way is expressing an opinion with gesture and sound. The non-verbal is at times more effective and influential than the verbal.

I have studied human language utilizing gestures, especially sign language using the hands. Expression by the hand has symbols varying in meaning from ancient human life to contemporary art. I intend to comment on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through the expression of hand movements.

I adopted finger speaking from sign language. Sign language mainly appears as symbolic and visual images. The symbolic images derive from an object's features and forms. Sign language particularly uses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Finger speaking refers to communication using fingerspelling. Fingerspelling represents letters and numbers by using the hand without lending meaning to the form of the hand.

I try to express communication through a depiction of hand movement, adopting fingerspelling as the object of form. This dissertation studying this consists of three chapter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my work is described in the Chapter 1 Preface. The meaning of finger speaking and the communication my work is based on is examined in Chapter 2. In this main chapter I try to interpret and express the visual attributes of language as a formative element by using the hand, the subject of my work, presenting new methods I can use with the hand and studying and analyzing production methods. In Chapter 3 I summarize my study, revealing my intentions for the progress of my work.